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적인 안목과 소양을 갖춘 지성인의 요람 “천안대학교”

이 천 수 | 천안대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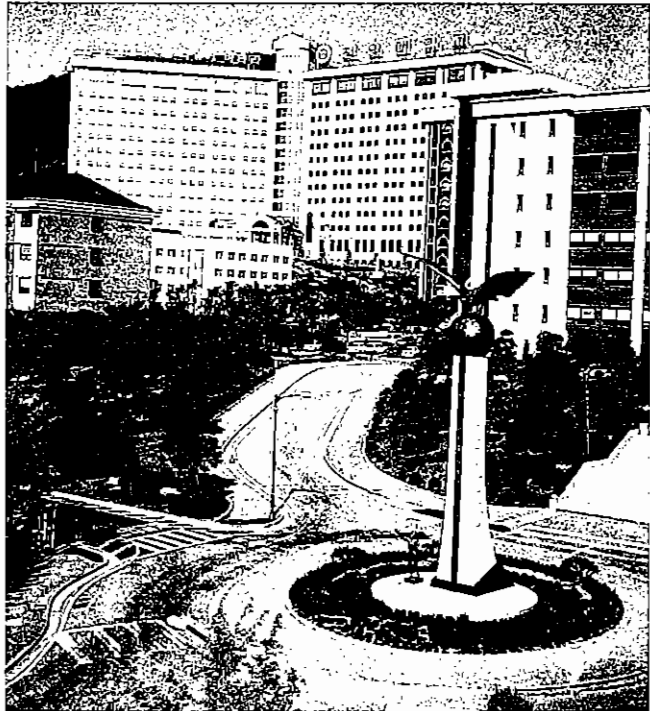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

천안대학교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 능동적인 지식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 명문대학교이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천안대학교의 눈부신 발전 속도와 국가 및 지역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 우리나라 대학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천안대학교를 최우수 대학교로 선정했다.

천안대학교의 발전 속도는 그 어느 대학과 견주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지난 '94년 기독교신학교로 문을 연 천안대학교는 그 해 12월 기독교신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듬해인 '95년 12월 기독교대학교로 승격, 불과 2~3년 사이에 입학 정원 320명의 4년제 정규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이어 '96년 12월 지금의 천안대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2001학년도에 4회 졸업생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나라와 민족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개교 당시 입학 정원은 고작 200명으로 학과는 4개 학과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법정학부와 기독교학부 등 7개 단과대학에 총 36개 학과, 입학 정원은 2,510명을 소화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천안 지역과 수도권 일대에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입학하고 싶은 대학 중 하나”로 지명될 만큼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대학원도 9개나 돼 천안대학교는 젊은 층 외에 평생교육 요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천안대학교를 설립한 장종현 박사는 학교 발전에 남다른 비전을 보여준 교육행정가. 대학의 역할에 대해 그는 “나라와 민족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인재 양성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장종현 박사는 천안대학교를 기독교 인성 교육에 기초한 ‘올바른 품성을 지닌 쓸모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벌써부터 기초를 다져 왔다.

국제적인 대학으로의 비전 확립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교 중 천안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3위를 차지, 사회흡수력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기독교인 교수 확보와 학생들의 가치관을 개발할 목사 영입 등 인격 훈련을 담당할 전문가를 꾸준히 받아들여 이제 천안대학교는 ‘알찬 지식인·품격 높은 지성인’을 동시에 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애초 기독교신학교로 출발한 천안대학교의 발전 과정은 지식과 인격의 수준 높은 교육 발전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천안대학교는 국제적인 안목과 소양을 갖춘 지성인 양성을 위해 외국인 교수 영입,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외국어 교육의 특성화와 외국 대학과의 학술 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대학으로 비전을 확립하고 있으며 바른 가치관 위에 지식을 세우는 박애주의적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